

TU Berlin

신소재공학과 10학번

서 현 선

1. 출국 전 준비사항

교내 해외단기유학프로그램에 지원한 후 TU Berlin 으로의 단기유학이 확정될 경우, 독일어 Intensive course와 buddy program 신청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독일어 Intensive course의 경우, 학기가 시작하기 한 달 전부터 약 한 달 동안 월 - 금 4시간씩 독일어 수업을 듣는 것인데 꼭 신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Intensive course를 통하여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독일어에 대해 배울 수 있을 뿐 더러, 다른 학교(서울대, 카이스트, 동서대 등)에서 온 한인교환학생들,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Buddy program의 경우에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TU Berlin을 다니는 독일학생 중 POSTECH 또는 다른 한국 대학교로의 단기유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을 buddy로 배정받게 됩니다. 처음 베를린에 도착하면 생활에 정착하기까지 의사소통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고,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점들을 buddy가 도와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후에도 한국과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친분을 유지하여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한, 당연히 왕복 비행기티켓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저는 KISES라는 학생전문여행사를 통해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핀란드 항공인 Finnair를 이용하여 귀국날짜 변경이 가능한 Berlin in - Madrid out 티켓을 약 126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귀국일 변경가능 티켓의 경우 변경불가능한 티켓에 비해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만 저 같은 경우 학기를 마친 후 이탈리아, 스페인을 여행하다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바로 귀국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학기 종료 시점이 확실치 않아 여행 시간이 부족하거나 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귀국일 변경가능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학기 종료 후 유럽 배낭 여행을 즐기시다 귀국하실 경우 저처럼 베를린 out이 아닌 다른 도시 out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행에 필요한 배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짐들을 국제택배를 이용해 미리 한국으로 보내놓고 여행을 해야 하는데 이는 귀국비행기의 화물칸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훨씬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학생 보험을 가입한 후 영문 증명서 사본을 준비해오시면 좋습니다. 베를린에 온 후 이 곳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보험을 드는 것에 비해 훨씬 비싸기 때문에 한국 보험회사에서 6개월 유학생 보험을 가입한 후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자 문제입니다. 출국 전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오실 수도 있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번거롭습니다. 때문에 저는 베를린에 온 후 이 곳에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독일의 경우 90일까지는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를린에 도착하여 90일 이내에만 Residence permit을 받으면 됩니다.

2. 기숙사 신청 및 생활

TU Berlin으로의 단기유학이 확정되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German Intensive course 및

buddy program 신청과 함께 기숙사 신청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Berlin의 경우, Berlin내 여러 대학별로 각각 고유의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Berlin 내에 있는 모든 대학교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Studentenwerk 라는 곳의 관리하에 섞여 사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배정받는 기숙사가 TU Berlin에서 다소 먼 곳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TU Berlin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약 5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 기숙사를 배정받아서 학교 통학에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치 문제로 인해 학교 기숙사를 신청하지 않고, Flat share, 사설 기숙사를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위치와 적절한 가격을 구하기 힘들 뿐 더러 알아보는 것이 번거로워 저는 그냥 학교 기숙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후 꼭 해야 하는 여러 서류 작업들(거주등록, 은행계좌개설, 학생증발급신청, welcome money신청, 비자발급 등)의 경우, 한국에 계실 때 받게 되는 TU Berlin International Exchange Student Guide 책자에 과정과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자를 잘 읽어 보시며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기숙사 내 인터넷 신청과 같은 경우,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Hot-zone 무선인터넷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 방의 위치에 따라 Hot-zone 인터넷이 잘 잡히는 방도 있는 반면, 매우 약하게 잡히는 방도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녁시간이 되면 속도가 더욱 느려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본인의 방의 위치를 고려하여 신청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선인터넷공유기를 사용하는 주변 방 친구들의 인터넷을 share하는 것입니다. Wifi를 검색하여 자신의 방에서 강하게 잡히는 무선인터넷신호를 찾아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친구에게 매달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고 인터넷을 share 하자고 부탁하면 됩니다. 이 방법이 비용도 가장 저렴하고, 인터넷 신청, 해지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어 가장 좋습니다만, 주변에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친구가 없을 수 있고 있다하더라도 이미 여러 명이 share하고 있어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이 직접 O2 등의 통신회사에 무선인터넷을 신청해 공유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O2라는 회사에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하였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 가격이 가장 비싸고 신청 과정이 다소 번거롭고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가장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휴대폰 wifi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무선인터넷을 주변 방 친구들에게 share할 수 있다면 비용도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이용의 경우, TU Berlin 학생증을 발급받게 되면 학생증에 6개월간 A-C 전구간 이용 가능한 교통티켓이 붙어 있어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통권은 처음 학생증을 신청할 때 지불하게 되는 학생회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학기 종료 후 학생증을 반납하면 남은 개월 수만큼의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목정보

TU Berlin의 대부분의 수업이 독일어로 진행되며 일부 수업만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영어로 진행되며 본인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전공 과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학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과목들을 조회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들을 선택한 후 학기 시작 첫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여 교수님을 통해 수강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통합적인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첫 수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강 첫 주에는 최대한 많은 수업에 참여하여 수업을 들어본 후, 듣고 싶

은 과목들을 선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Berlin 내 대학교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 TU Berlin 말고 HU Berlin 등의 다른 대학교 과목 또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대학교 사이트를 통해 과목들을 조회한 후, 듣고 싶은 수업의 첫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대신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해당 학교의 office에 찾아가 본인이 TU Berlin 학생임을 밝히고 해당 학교 과목을 수강하고 싶다고 말하여 추가적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Nano-structured Biomaterial, Technology of Ceramic Material, Organic Chemistry 1의 세 가지 전공과목과 HU Berlin에서 개설된 European Economic History 2라는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먼저 Nano-structured biomaterial 수업의 경우, Seminar 수업으로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일반적인 Lecture 과목과는 달리 학생들이 biomaterial에 관한 서로 다른 주제의 논문을 각각 공부한 후 매주 학생들과 교수님 앞에서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Technology of Ceramic Material의 경우 Lecture와 Practice(실험)이 합쳐진 형태로서, 학기 중반까지는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며 중반 이후부터는 매주 조별로 배운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실험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Organic Chemistry 1의 경우, 교수님의 강의와 조교님의 연습문제풀이 수업의 형태로 진행되며 final exam을 통해 평가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European Economic History 2의 경우, HU Berlin의 경제학과 학생들을 위한 수업으로써 저는 교양과목으로 수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수님의 강의형태로 수업이 진행되며 교수님의 수업 내용과 관련한 경제학 논문들에 대해 공부하는 practice 수업이 함께 병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식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학점인정은 받을 수 없지만 TU Sports program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과목을 신청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매우 저렴한 과목에 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스포츠들(펜싱, 브라질리언 주짓수, 킥복싱, 카약, 미식축구 등)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나 정도는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 대학생활

학기 초 International student들을 위한 많은 파티들에 초대받게 됩니다. 이러한 파티들을 통해 대학생들의 파티문화를 즐기고, 다른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베를린의 경우 특히 독일에서 파티 문화 및 밤 문화가 발달한 도시로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메트로, 트램, Night bus 등이 24시간 운행되기 때문에 귀가 걱정 없이 노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학교에서 온 같은 한인교환학생들끼리 친해져 서로 생일파티도 하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습니다.

축구, 배구, 농구 등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 TU Sport에서 주관하는 TU League에 참여하시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 TU Sport program과는 별개로 TU Sport에서 주관하는 여러 운동 종목 리그들로서, 베를린에 있는 대학생들이 각자 팀을 구성한 후 league에 등록하여 프리리그처럼 1부리그, 2부리그, 3부리그, 4부리그 등의 리그에 참가하여 승강제 형식으로 매주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TU Sport 사이트 내의 각 리그 게시판에 들어가서 본인의 소개와 함께 자신의 실력을 어필(?)하면 본인을 관심 있어하는 몇몇 팀들에게서 팀에 들어올 것을 제안하는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팀에 들어가서 리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는 축구 리그에 참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매주 주말 축구를 즐길 수 있었고, 또한 독일 친구들과 함께 유니폼도 맞추고 팀을 이루어 축구를 할 수 있었기에 더욱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과제, 프로젝트, 시험공부 등의 학업에 관련된 일을 할 때에는 학교 내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U Berlin의 도서관은 우리 학교 도서관인 청암과 비슷한 형태로서, 컴퓨터와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좌석, 칸막이가 쳐져 있는 좌석 등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식사 및 커피, 음료가 제공되는 카페가 있어 휴식도 취하고 카페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5. 여행 정보

여름 학기의 경우, 4월 초에 개강하여 7월 중순~말에 학기가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German intensive course를 수강하게 된다면 3월 한달 동안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3월 초에는 베를린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저는 3월 초에 베를린으로 입국하여 바로 German intensive course를 수강하였고, 이 intensive course가 종료되고 개강 시작 전까지의 부활절 공휴일 기간(약 1주일)에 독일 남부 지방(뮌헨, 뤼센)을 여행하였습니다. 이 후에는 학기 중에 주말을 활용하여 가끔씩 이웃 나라 및 독일 내 도시들을 여행하였고, 학기를 마친 후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약 3주간 여행한 후 귀국하였습니다. 학기 중 여행의 경우, 수업으로 인해 한 번에 오랜 기간 여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저가항공(이지젯, 라이언에어)을 이용하여 한 번에 한 나라씩 여행하였습니다. 저가항공의 경우, 약 한 달 전에 미리 구매할 경우 훨씬 싸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 비행기티켓을 일찍 사면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6. 유학 경비 내역

유학 경비는 본인이 여행을 얼마나 많이 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베를린 생활의 경우에는 베를린의 물가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숙사비 매 달 약 30만원 정도에 기타 밥값, 생활비는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하는 정도와 비슷한 정도의 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행을 갈 경우, 여행하는 나라의 물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1일 10만원 정도 지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베를린에서의 기본 생활비 + 여행경비 + 입출국 비행기티켓 + 여행자보험을 계산해보시면 총 여행 경비를 대략적으로나마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지원받은 500만원 포함 총 약 10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lalara71@postech.ac.kr로 연락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성실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